▶▶ 매일 INDEX

5면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개막

전주매일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음 3월 26일) 제326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세계 생활 체육인의 대축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대회' 개회식이 열린 지난 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회를 알리는 불꽃 쇼가 벌어지고 있다.

전북 아 · 태 마스터스대회 '팡파르' … 20일까지 대장정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

전주월드컵경기장서 개회식… 71개국 1만4177명 참가

대회참관 프로그램 · 아시아체육기자연맹 대상 팸투어

전세계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회식이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3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 날 개회식에는 '새로운 변화, 희망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홍보대사 진성, 나태주 등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사회자의 개식통고를 시작으로 대형 태극기가 입장하고 성악가 고성현의 애국가가 경기장에 울려퍼졌다. 이후 전세계 71개국에서 온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등장, 5개 시군에서 올라온 노상놀이 50명과 함께 본부석을 지나며 경기장을 행진했다.

이어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인 윤점용 서예가의 대형 서예 퍼포먼스, 진성, 김주리, 어린이 합창단의 주제가 합창, 우석대학교의 태권도 퍼포먼스 공연을 선보여 개회식장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김관영 도지사의 개회사, 세르게이 IMGA회장의 축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환영사가 차례로 진행됐고,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개회선언을 한뒤 대회기가 게양됐으며, 익산 미륵사지에서 채화되고 도내 14개 시군을 돌며 전북도청에서 개회식장으로 봉송된 성화는 멋진 드론연출로 점화됐다.

성화점화를 끝으로 공식행사가 마무리됐고, 이어 식후 행사로 가수 오마이걸, 영탁의 열정적인 공연이 펼쳐져 개회식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흥을 제공했다.

김관영 대회 조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생활체육인들이 이 대회를 통해 서로의 역량과 경험을 나누고, 화합과 즐거움을 통해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한 전라북도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도 기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IMGA회장은 축사를 통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 전북도와 세계각국의 코치, 선수단, 자원봉사자, 관중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경쟁하고 그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스포츠 애호가들이 모였다. 마스터스 대회는 단지 메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스포츠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살려 우리는 하나로 뭉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 조직위원회는 웁저버(대회참관) 프로그램을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주라한호텔과 도내 경기장에서 운영했다.

12일은 전주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했으며, 주된 내용은 아태 조직위 소개, 대회 유치 및 준비과정, 대회 운영 분야별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13일은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육상, 배드민턴, 야구 경기를 참관했으며, 경기 관람 외에도 경기장 시설, 선수단·심판 대기실, 자원봉사자 배치 현황, 간식 제공 등에 대해서도 현장 질의응답이 있었다.

또한, 조직위는 12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체육기자연맹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했다.

이번 팸투어는 세계체육기자연맹총회에 참석한 아시아체육기자연맹 소속 간부들이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개회식에 참석하면서 아시아 지역 각국의 대회의 현장감을 전하고 전북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아태마스터스대회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동안 전북도내 14개 시군 일원에서 25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전세계 71개국 1만4,177명이 참가해 역대 대륙별 마스터스대회 중 최대 규모다. /김재훈 기자

전북 역점 현안 해결 野 원내사령탑과 면담

김관영 도지사, 민주 박광온 원내대표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건의사항 전달
박 원내대표 "전북 발전 위해 입법 등 뒷받침"

김관영 도지사가 주요 역점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휘부 면담, 이달 초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에 이어, 야당 지휘부 면담까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국회본관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추진,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등 주요 현안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관련사진 3면〉

김 지사는 먼저,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국가 스마트 그린산단인 새만금은 저렴한 부지 비용과 국내 유일의 RE100을 실현하는데 최적지임을 강조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가 되어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지사는 내년 1월 18일 특별한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반영해 마련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만 한정해 광역교통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권·광주권과 비슷한 광역교통 통행량을 가진 전주권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 설득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서, 지역의 오랜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국립의전원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박광온 원내대표는 "작년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지자체 합동평가 전국 1위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더 큰 발전과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 입법과 예산 등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해주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수시로 국회와 부처를 방문해, 2024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주요 핵심사업 설득 활동과 함께 현안 법안,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청, 오늘부터 재난안전상황실 가동

여름철 집중호우 · 태풍 등 대비… 10월 12일까지

새만금개발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재난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해 초동 조치와 지휘 등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기상특보에 따라 관심(평시)→주의(주의보)→경계(경보)→심각(광역적 재난) 등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

방조제는 강풍으로 월파가 우려되면 통행제한과 우회를 안내할 계획으로, 농어촌공사와 관할 경찰서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남북도로 2개 공구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주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도 운영된다. /김재훈 기자